

<서동욱 시 10편>

비광 또는 이하의 마지막 날들

장안에 한 젊은이 있으니
나이 스물에 이미 마음은 늙었네
— 이하(李賀)

1

아 이토록 슬픈 그림이 또 어디 있으랴 찢어진 우산 위로 비는 내리고, 개구리
덤벼드는 실개천에 그는 붉은 목욕 가운을 걸치고 서 있구나 미친 척하려고 아버지
중절모까지 빌려 쓰고 나왔구나 닭! 학! 사쿠라! 보름달! 이 고귀한 왕자들 가운데 빛도 안
나는 비광, 돈 못 버는 왕좌의 군주이기에 더 슬프구나 그리하여 무직이니까 그대의
정체는 일단 시인이지?

2

‘미친남’이라 불리는 이 비오는 그림 속의 배우. 이자보다 더 잘 이하를 연기한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 배우를 연기한 나는 햄릿이었다 그리고 하남성으로 잠입해
들어가 폐병쟁이 이하가 되었다 나는 이하가 나귀 타고 지나가던 무성한 갈대밭이었다
갈대처럼 황제의 귀에 소근거리던 내시였으며 이하를 모략한 관리였으며 그 관리의
아버지 하느님 헌법이었으며, 이하를 몰래 사랑한 계집종이었다 나는 당나라의
국민. 주권. 영토이자, 이하가 시를 담아두던 비단 주머니였고 그가 드나들던 기방의
댓돌이었으며 아아 이 우주가, 이 모든 실패가 나였으며……

3

시인과 관리가
관리와 부자가
시를 쓴 족자와 장식품이,
하나는 부인
하나는 대감
하나는 부인
하나는 노인

만져보니 잔디는 플라스틱
젓가슴은 실리콘
시는 플라스틱
시인은 골프채를 들고
플라스틱 위에 선다

이 놀이를 하기로 되어 있던 나는
지금은 백치와도 같은 분노만 끓어오르는 熱덩어리
수백 개째 남의 술상을 뒤엎은 뒤
택시비를 빌려 귀가한다

4

마음은 장님의 눈처럼 안도 밖도 없는 혈령한 검은 구멍일 뿐. 그 안엔 애써 간직할 추억도 숨기고 지킬 비밀도 없네 마음이 열려 버린 자는 꼭 다물었던 향문이 열려버린 역사체 더 이상 바다를 막을 힘도 없이 원시의 세포막이 최후로 찢어지며 몸 안 가득 물이 찬다—향년 27세. 이름: 이하. 과거를 보러 갔다가 햄릿처럼 아버지의 유령이 출현하는 바람에 신세를 망침.

5

백옥루에 글을 지으러 가야 한다고요? 마차에 타게나 그러면 그대의 패와 간을 새걸로 바꿔 줄께 계속 투전판에 껴서 피워대고 마셔댈 수 있지 그런데 패는 비광일세…… 염병할 하늘의 딜러! 목욕 가운은 놀이 중인 다섯 살짜리의 발아래서 임금님의 망토처럼 질질 끌리고 실개천은 줄줄 눈 아래로…… 이제 그만 내 모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이 자식아……

6

그리하여 나는 청춘의 불을 꺼준 시간의 단비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다 살아야 할 시간이 더 남지 않아서 고마울 것이다 처녀에게 애를 배게 하던 못된 비바람이 더 이상 내 성기 속에 살고 있지 않아서 이젠 편안할 것이다……

장국영

1

천사는 난간으로 올라갔다

남길 말을 찾았으나

머리가 저금통처럼 찢렁거리며

잘못 만들어진 주화 같은

영뚱한 단어들만 사방으로 흩어졌다

발아래서 병어리처럼 필력이는 호텔의 만국기

아, 지금은

단 한마디의 대사도 씹먹을 게 없구나!

2

그해 여름

대성학원 근처의 동시 상영관이 일제히

영웅본색을 올릴 때

나는 대학에 갈 마음은 없었지만 그 계집애를 보러 빠짐없이

학원에 나갔네

노량진

돌아가고 싶지 않은 동네

노선버스와 떡볶이 포장마차와 담배꽁초가

세상 마지막 수챗구멍처럼 꽉 막힌 곳

정거장마다 두 개 끌인 동시 상영관

맨 뒤에 앉으면 흰 복면 쓴 빈 좌석들이 지평선에 일렬 맞춘 KKK단처럼

장관인 곳

그해 여름

복면 쓴 좌석들 너머에서

치지직 비 내리는 화면이 끊어질 때마다

욕을 해대는 재수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사는 한 자루 권총을 들고
순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듯
구룡반도의 태양 아래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네

3

천사가 사랑했던 남자들을 생각했다
꼭 친구와 붙어서 학원 문을 나서던 그 계집애처럼 뜻대로 안 되는 연인
담배 연기 꼭 찬 극장 휴게실
표지가 떨어진 주간지들, 흠집 난 바둑판, 대걸레가 훑치고 가기 무섭게
빈 바닥에 선명하게 뺄어놓은 가래침
그때 거기를,
무엇을 생각하러 찾아갔던가?
그 계집애 조금, 그리고 솔직히 아주 약간 대학에 대해서?
그러나 여덟, 아니 아홉 정도는 정말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
구룡반도의 태양이 축성해 주는 가운데 오만하게 죽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못 죽으면 결코 죽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았다
마흔여섯의 생일날 아침
아이들에게 선물받은 넥타이도 매 보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싸다가,
동시 상영관에 앉아 있던 소년을 우연히 기억해 내고는
그의 유치찬란함이 자기 것이었다는 데
쑥스러워하리라……

(천사는 난간 위에서 잠깐
놀란 듯이 자기 나이를 헤아려보았다
어이없고, 불공정했다)

4

그리고 오랜 뒤에 그 여자를 만났다
내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것도 잊은 듯 말을 걸어왔다
이제 여행사 단말기 앞에 앉아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는 상담원 원하면 홍콩이건
대만이건 아주 싸게 가는 법도 알게 되었다
그래요?

되물으면서 나는 아주 잠깐 비행기 탈 생각을 했다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사라지는 동안
구룡반도에 떠 있는 구름들이 햇살을 받으며 오래도록 게으름 피우는 광경이 떠올랐다
내가 놓쳐버린 축성받은 죽음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서글픈 노랫소리도 들려온 것 같은데,
어느 영화에서였는지 끝내 기억해 내지 못했다

5

배우가 죽던 날
경야(經夜)하는 수녀들처럼
노랑진의 학원들 앞에선 오래도록 담뱃불들이 깜박였을 것이고
조문객을 내려놓고 또 태우고 가는 긴 시내버스의 행렬이
밤늦게까지 도로를 막아섰을 것이고
취한 재수생들은 술집 문을 잡고 통곡했으리라

이 모든 가련한 밤들을 불빛 꺼진 눈길로 내려다보며
천사는 하늘을 향해 천천히 날개를 폈다

놀란 눈처럼 부릅뜬 호텔 창문이 오래도록
중력의 묘기를 응시했다

한밤중의 냉장고

나는 성령과 밀회하였다.

.....

주여, 무슨 일로 당신께서는 저를 택하셨나이까?

별로 특별한 이유는 없어.

— 사르트르, 『말』에서

잠결에 문틈으로 보니

캄캄한 마루에서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있다

마룻바닥 위로 금가루를 뿌리며 흘러나오는

신성한 빛의 물결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우주선의 메인게이트를 찾아냈구나!

(아 자칭 여중시절 보물찾기의 달인이여.....)

호박 머리에 산도크래커 눈을 붙인 난쟁이가

천천히

냉장고에서 걸어 나와 아내를 포옹한다

그렇소

그 모든 평범한 냉장고들 틈에 숨어

우리는 지구방위대의 레이더를 피해 무사히 잠입할 수 있었소

오호!

(감탄! 아내가 두 손을 모은다)

잘 들으시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한 쌍씩 구출하기로 결정했소

이제 일주일 뒤면 이 별에 종말이 올 거요

오호! (깜짝 놀라는 아내)

왜냐고?

이유는 없소

술 취한 뽀빠놀라(주- 텍사스 주 크기의 우주곰돌이)가

날아댕기다가 지구와 충돌할 예정이오
이런 일을 재수에 옴 붙었다고 하지 않소?
이유는 없는 거요……
그런데 바로 당신이 선택되었소!
난쟁이 우주인은 아가미를 열심히 움직이며
인간의 말소리, 그러니까
그들에겐 저속한 보드게임용으로 쓰이는 어떤
빈약한 신호체계를 흉내 낸다

한쌍이라구요?
그럼 우리 애들은! 엄마는?
그저 남편과 저만 가나요?
당신의 남편은 갈 수 없소 애들도 물론이오
주색, 짬 음식, 씨가렛, 트랜스지방, 나이트 라이프에 대한
광적 집착이 천부적으로 열등한 그의 몸을 망쳤소
(그는 임금님처럼 살았던 것이오)
그는 긴 여행을 견디지 못할 거요
그가 낳은 허약한 아이들은 열성유전을 거둬하여
다시 타락한 인종을 번식시킬 거요
이번 지구인보다 더 못한 종족의 시조신이 될 거요
오호!(이번엔 진짜 마음의 동요가 쫘 있는 듯)

대신 우린
신심 깊은 한 남자를 당신의 이상적인 짝으로 택했소
보이 조지라 불리는 자로
노래 부르는 일이 그의 업이오
그의 성대는, 탁월하게도
우리 아가미와 쫘 닮았소

(이런! 하필이면……)

망설이며
아내가 손톱을 물어뜯는다
(마침내 인생에 한 번쫘은 반짝이가!)

인류를 구할 사명이 이렇게 찾아왔구나
그간 얼마나 이 냉장고를 찾아 헤맸던가!
남자들의 우아한 외계인처럼
냉장고에 기대서 전단지를 표절해 본 순간
특별한 삶을
이 제품이 가져다줄 걸 확 직감했지
오 나날이여! 구질구질함이여! 이젠 빠이빠이다
근데 보이조지가 걱정은 걱정이네……)
이윽고 결심한 듯
아내는 물병을 잡으려는 몸짓으로
냉장고 안으로 고개를 들이민다
(저년!……)

점화 직전의 한순간처럼
침묵과 어둠이 마루를 덮는다

외계인 애인

나 전설의 플라스틱 재벌은 가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네 할미는 헌신적이었지 네 에미는 공부도 잘했지 남대문은 활활 잘 탔지 등등 이야기를 숨기기 위한 이야기를 뜯금없이 하고서, 비로소 낡은 휴대폰을 꺼내 외계에서 찾아왔던 애인의 문자를 읽어 줄 것이다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힘내라고 어깨라도 토닥여 줘야지요 매력 있어 이백 살 넘은 노파답지 않은 말투예요 영리한 첫째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신이 날 것이다 고등학생 때였으니, 그래 정확히 할아버지보다 이백 살 많았단다 그리고 늘 하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 공을 들인다 피부가 정말 고왔어 합성수지를 특수하게 재활용한 살갗이라 이백 살 노파라고 믿을 수 없었단다 외계 과학의 승리였지 곧 이야기는 가장 슬픈 대목으로 들어서리라 지구의 바다를 눈에 담고 그녀가 동포를 생각하며 얼마나 흐느꼈는지, 수자원 담당 원로인 그녀가 왜 전쟁 중인 자기 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아이들은 정치 이야기도 꼭 참고 듣는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합성수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지 이 세상 모든 고무공을 만져 보았단다 간절하게, 그녀의 피부를 되찾고 싶었어 모텔을 전전하며 같이 끌어안고 누웠을 때의 그 합성수지 촉감을 잊을 수 없었단다 아버님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또 며느리에게 핀잔을 듣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밤거리 그만 헤매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곤 교보문고 옆에 길다란 광선 기둥을 만들며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를 운전하고 떠나갔지 이 세상 모든 플라스틱을 만져 보았단다 결국 난 합성수지 분야의 일인자가 되었고 군수산업에도 손을 대 인류는 두 번의 전쟁을 플라스틱 뿔망치로 치르면서 가벼운 타박상 환자만 남겼지 그러나 그 피부 감촉을 다시 느껴 보지는 못했단다 지구의 합성수지 기술은 이백 년이 뒤떨어져, 그때까지는 누구도 살 수 없지 전쟁은 끝났을까? 그녀의 별은 해방되었나? 세상을 떠나 이백 년 우주를 배회하면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아예 시작도 말았더라면!..... 그러면서 진작 잠든 손주들을 안아 침대에 누이고, 그룹 사옥 꼭대기로 올라가 송전탑에 걸린 은하수에 대고 네 이름을 부른다 세 번 부르니 별 이름 같다

이별의 노래

나는 ‘ 목숨을 구하는 약이라도 되는 듯 네 이름을 혀 위에 올려놔 본다’ 라고 문자를 보낸다 곧 너는 ‘ 그럼 내가 약장수네?’ 라고 슬며시 피하는 답신을 보낸다 그러곤 우리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사라져 가는 생명을 응시하듯 각자의 반짝이는 창문 앞에서 희미하게 웃는다 따라오지 마, 이곳은 죽는 길 그러면서 너는 벼랑 위를 사뿐사뿐 건너간다 나는 너와 계속 장난칠 수 있게 벼랑에 부딪치는 햇빛도 바람도 소나기도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네가 풀섶에서 우연히 찾아내고 기뻐하는 새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죽을 몸, 어서 네 가족들에게 돌아가 멍멍개야! 그러면서 너는 내 앞발을 붙잡고 췌췌 해준 뒤, 쫓긋한 두 귀 사이를 여러 번 쓰다듬어 준다 이제 됐지? 입을 열면 할 말은 나오지 않고 그저 킁킁거리는 네발짐승의 목소리 꼬리는 이 동물의 몸에 붙은 습관대로 만날 때나 이별할 때나 다른 표현을 모른 채 똑같이 흔들리는데, 너는 태양 속에서 마개를 연 환타 한 병 같은 미소를 남기고, 벼랑 뒤로 사라진다

캔디

그녀를 캔디라고 한다 사자머리로 파마한 탈색된 머리는 실은 금발이라 한다 결혼은 다시 할 것이 못 되고 마흔두 해 동안 사이 나쁜 이 몸도 계속 들어가 살고픈 집이 아니다 그리고 캔디는 일터로 나갔다 들어와 전화기 앞에서 기다린다(근데 뭘?) 겨울엔 벅푸 온천을, 가을엔 혼자 시안의 유적을…… 진시황릉을 보았지요, 가이드가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동안 엽서에 써 본다, 아무리 안달해도 뺨은 쳐지고 허리는 굽어져요 세상을 다 가진들 뭘 하겠어요? 젊은 애 하나 뜻대로 못 하는 것을…… (황제가 자리를 비우면 키클거리며 저희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궁전의 어린 장난감들 이젠 젊은 애들과의 채팅도 노래방에서의 섹스도 스폰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윽고 잠시 생각해 보지만, 주소란엔 아무것도 써넣지 않는다 활주로는 어느덧 빗속에서 사라져 가고,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들고 동아시아의 면세점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삶 그러나 명품들도 풀이 죽은 채 이제 마술을 걸어 주지 못한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캔디는 결심한 듯 고개 숙인 거울을 다그치며 황금 마스크에 그린 화려한 웃음을 보여준다 거울이 코디해 주는 대로 수없이 웃음을 그려 본다 웃어라, 웃어라 캔디야 들장미 소녀야, 바로 이 웃음이야, 기억해야지 결심하고서 면세점에서 산 향수 냄새를 한번 맡아본 후 잠자리에 눕는다 어둠이 몰래 바라보는 가운데 갑자기 구면인 듯한 어떤 소녀가 무한한 시간을 소유한 부자처럼 크게 웃는다 이 꿈을 관찰하고 있던 캔디는 하마터면 행복에 질린 그 가분수 얼굴이 바로 캔디라고 착각할 뻔했다

과오의 본질

영주는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다
창끝에 꽃혀서 내동댕이쳐질 때마다
어린 군사들 몸에서 새어 나오는
무서운 비명

그는 수를 놓고 있는 중이다
뱀과 개가 뒤엉킨 왕가의 문장(紋章)이
붉은 비단 위에서
영지가 엉겨뚱 밭으로 변해 가는 몇 해 동안
아주 느리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수를 놓고 있는 중이다

시녀들과 요리사들의 시체를 밟고 올라간 병사들이
햇불을 쳐들자
휘감겨 올라간 그의 깃발들이 탄다
그는 수를 놓고 있는 중이다
왕비와
어려서 죽은 공주의 무덤이 검게 그을리기 시작했을 때
어두운 촛불 밑에서
불안하게 자리를 지키던 정부(情婦)가 비로소 탄식한다
나의 주인이시여!
늙은 대신들의 고매한 예절이
한낱 사악한 음모였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는
수많은 밤들의 숫자였지요
그 밤들은 당신의 시시한 의리와
안이한 타협으로 말끔히 사라졌어요
수선화는 이제 꽃잎을 거두고
눈앞엔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날 여름인데,
당신은 아무 것도 기르지 못했군요

그는 말없이 수를 놓고 있는 중이다
수를 놓으며 궁전의 어느 가을을 생각한다
현인들은 별자리를 강해하고 악사들은
사무치는 노래를 지어 바쳤다
대신들은 지혜롭고 귀부인들은 정숙하며
사제들이 올리는 제사는 신을 기쁘게 했다
형과의 지독히도 길었던 투쟁은
어느 날 그를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로 만들었고
형에게서 빼앗은 여자는 몇 번의 겨울을 간신히 넘겼을 뿐이다
징벌은 우연을 통해 말을 건넨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휠체어에 앉은 공주는
올바른 느낌대로 중력의 유혹에 손을 내밀고
계단 아래로 바퀴를 굴러버렸다
어느 한순간
오래된 병균이 잠을 깨듯
그의 마음이 변했다
저주의 예감 때문에 당혹스러운 가운데
그는 망설임 끝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가면들을 보관하는 회랑에서 빙그르르 돌아본 후
자신을 용서할 기회를
모르는 척 슬쩍
버렸다

종루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왕비께서 당신을 한낱 궁전의 창녀인 제게 부탁하셨을 때
저는 당신의 눈에서
불이 붙어 가라앉는 섬들과
공포를 바라보느라 입술이 얼어 버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당신의 침대에 올랐어요
당신의 복수심이 제 몸 구석구석을 통과하도록 내버려두었지요
복수라니, 우습잖아요?
복수할 것은 애초에 없고

당신이 지쳐 늙을 때까지
천천히 과즙이 고이는 항아리처럼 비명으로 가족을 채우고서
죽어간 것들만 있는데.
이제 의무는 지켜졌어요!
그러곤 긴 창들이 세워져 있는 창밖으로
몸을 던진다
그는 수를 놓고 있는 중이다

멀리서 백성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 가운데서
그는 수를 놓고 있는 중이다
기형의 뱀과 병든 개가 서로 얹혀있다
죽고싶어, 죽고싶어 말하는 그들의 지친 눈은
이 집안의 마지막 한 방울 정액처럼
혼탁하고 윤기 없다
이윽고 정교한 장식이 꼭 들어찬 문이 조각나
놀라운 속도로 날아가더니
말 탄 기사가 들어오고
높은 투구에 부딪쳐 천장의 샹들리에가 깨어져 나간다
기사의 긴 창이 등 뒤부터 그의 심장을 찢어버렸을 때
세계가 저무는 그의 눈동자 속에는
뱀의 혀를 장식했던 루비와도 같은 어떤 감정이 이글거렸다
한 이름을 불러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
몸 안의 모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은 나갈 구멍을 찾지 못해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아 보이게 된 영주의 몸은
미완성의 문장(紋章)을 천천히 찢으며
지옥을 향해
고꾸라졌다

산부인과 초음파

오래된 무덤이 있는 땅 밑으로
투시 카메라가 들어간다
삶의 음화 같은 초음파에선
죽음이 먼저다
무덤 속에서
작은 유골 하나가 돌아눕는다
유골은 갑자기 빙의된 생명이 불쾌하다
척추로 들어와 심장을 움직이고
뇌수로 이어져 지루한 사념이 시작되며
마침내 구부린 다리에 피가 돌아
무릎이 저리기도 하는 이 생명이
견디기 힘들다
심장 소리예요,
신기하죠?
의사가 불륜을 높이자
생명 때문에 화난 유골의 쿵쾅거리는 소리
제발 망자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
심장 때문에 마디마다 덜그럭거리며
유골은 작은 묘지 속에서
생명에 맞서 가망 없는 싸움을 벌인다
그러던 어느 날
열리는 몸 밖으로 백기를 들고 쫓겨 나오며
허파가 터지도록 밀려드는 공기에 익사 직전까지 내몰려
모든 위엄을 포기한 채
손에 꼭 쥐고 있던
죽음을 돌려 달라고
안하무인으로
약을 쓴다

생각

저녁엔 파즈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중국 건과류는
일단 공을 잘 잡아야죠
겉질의 알상한 쪽 말고 굵은 쪽을 세워서 이빨로 짹
그러면 생각이 깃들기 시작한다
생각은 정녕 이빨로 하는가?
겉질이 깨질 때
한 사람이 돌아오고
몰래 어떤 오류를 인정하고
지구가 지겹다

생각
영혼의 징표라 여기겠습니까?
지방으로 된 뇌 조직이 회로에 혼란을 일으키면
발생하는 감전 때문에
늘 한치 앞이 두려워요
생각이란 무엇인가?
고기와 지방과 뼈를 편치 못하게 하는 것
옛날 일을 생각한다 다 지나간 일이다
그러나 생각 때문에 다시 짧은 문자를 보내게 된다
우리 다시 해 볼까?
생각뿐이다 지방은 가만히 있어야한다
혈액은 빨라져서는 안 되고
통 통
벽에 치는 테니스공처럼
무게와, 탄성과, 버릇과, 규칙을, 그러니까 고유성을 지녀야한다
이 멋진 체조를, 생각이 다 망친다
그리고 보면 문자는 정녕 생각이다

(문자를 발명한 중국인들은 늘 필체에 탄복했다

필체는 체조를 더 못하는 앓은뱅이의 근육이 한순간
배터리 때문에 쭉 당겨지고,
마침내 글을 쓴 이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생각이다 핸드폰을 누를 때도 중국의 명필처럼, 생각으로 지쳐
눈을 감는다)

튀 튀
파즈는 열매를 먹는 것 보다
껍질을 뺀 품새가 중요하다
상스럽고
더럽고
한마디로 비호감으로.
필터 없이 담배를 말아 필 때처럼, 튀
그러면 껍질이 바로 생각인가?
열매껍질이라기보다는
다 뽑지 못한 뿌리 같아 보였는데

겨울

방은 먼지로 가득 합니다
당신은 오겠습니까?
꽁꽁 언 가지들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 아집 때문에 부러지는 동안
백열전구는 먼지를 감시하고
당신은 오겠습니까?
겨울은 먼지로 지은 벽
겨울은, 당신이 오지 않을 테지만
오겠냐고 묻는 일
마음에도 없지만
권유를 선점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소한 싸움이 인생 전부임을 깨닫는 일
아집은 굳혀서 얼음처럼 완성시켜야지
봄이 와서 녹기를 기다리는 건 태만이야
라고 블로그에 띄우는 여고생 같이
굳은 치즈 같이 겨울은 겨울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말라가는 치즈처럼 짜디 짠 먼지
(환기란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삶은 달걀처럼 완성 중인 정신이 깨어져나가잖아)
몸을 오리털로 싸맨 채
슈퍼에 가는 잠깐 동안의 휴전 말고는
뜨거워진 먼지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잘 보관한 보이차처럼 겨울은
먼지 한 덩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